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호 【루게 제24421호】 주제103(2014)년 1월 8일(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광범히 보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14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조국의 당과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그이께서는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이라고 하시면서 올해에 조국의 당과 인민이 들고나갈 할 전투적주요를 제시하시었다.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그 불꽃이 사회주의건설

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쿠웨이트신문 《알 라이》는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인민조선과 2014년, 위대한 변혁을 위한 투쟁의 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원수께서는 신년사에서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의 한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정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였다고 언급하시었고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조국의 사상, 조국의 힘, 조선식이 제일이며 위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국의 성스러운 위업을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은원수께서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조국의 당과 인민이 들고나갈 할 전투적주요이라고 밝히시었다. 정치사상전직자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보루이며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조선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은원수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중국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로씨야의 신문 《레도모스체》와 인터넷통신사인 에르베카, 로스발트, 발트인포, 아시아프키 레보포르트, 인터넷TV 《미르 24》, 웨남의 신문들인 《년전》, 《연도이 년전》, 《타임니언》과 인터넷통신사인

브이엔엑스프레스, 전 쟈, 캄보디아신문인 《캄보자데일리》, 《라스마이 캄보자》, 《노프와트》, 이란 파르스통신, 말레이시아신문 《우두산 말레이시아》, 네팔의 신문 《라이징 네팔》과 씨저마라 TV방송, 인디아의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에코노미크 타임스》, 《에이선 에이지》, 《스테인즈》, 《트리뷴》과 인디아-아시아통신, ANI통신, NDTV방송, 《뉴스 24》TV방송, 지 뉴스TV방송, 인도네시아신문들인 《우아라 가르야》, 《폼바스》, 《씨부파르 인도네시아》, 《요란 멜보》, 《인터넷서널 미디어》, 파키스탄 신문 《더 뉴스》, 싱가포르의 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TV 《아시아소식통로》, 튀르키예신문들인 《밀리에트》, 《휘리에트》, 《노이예 쥬리히 짜이름》, 《타짜이름》, 미국신문 《엔 뉴에보 헤럴드》, 메히코 밀레니오TV 방송, 니카라과신문 《라 프렌세》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기본내용을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보도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 2014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그이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어 그이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었다. 또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어 그이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었다.

중국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로씨야의 신문 《레도모스체》와 인터넷통신사인 에르베카, 로스발트, 발트인포, 아시아프키 레보포르트, 인터넷TV 《미르 24》, 웨남의 신문들인 《년전》, 《연도이 년전》, 《타임니언》과 인터넷통신사인

성TV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김일성신문》,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 중국망, 만마신문 《뉴 라이트 오브 만마》, 웨남의 신문 《타임니언》, 인터넷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네팔신문 《네팔 투데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마시령스키장을 돌아보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 나이지리아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나이지리아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중국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로씨야의 신문 《레도모스체》와 인터넷통신사인 에르베카, 로스발트, 발트인포, 아시아프키 레보포르트, 인터넷TV 《미르 24》, 웨남의 신문들인 《년전》, 《연도이 년전》, 《타임니언》과 인터넷통신사인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3168군부대, 제695군부대 군인들의 격술훈련을 보시었다. 그이께서는 훈련을 보시고 군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한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전체 초병들은 조선로동당의 귀중한 혁명동지, 혁명전우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믿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군군명령의 길에서 자기들앞에 맡

겨진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동북망,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통신도 이와 같은 소식들을 보도하였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신장, 어로공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된 소식을 올렸다.

만마신문 《만마 알린 데일리》, 나이지리아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526대면합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시고 장병들을 축하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나이지리아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네팔신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툐 경축행사

인디아, 우간다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툐에 즈음하여 인디아에서는 토론회가, 우간다에서는 사진, 도사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지난해 12월 30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선군영도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다. 또한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사

건,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조선의 총대》가 상영되었다. 행사장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인디아주체사상자력갱생연구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김정은원수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 실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

는 사변이며 조선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다. 그이를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과의 대결에서 승리만을 떨치고있다. 김정은원수각하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강철의 명장이시이다.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대적도 단애에 쳐부실수 있는 강군이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원수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나라의 통일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의 사회주의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55호 주제103(2014)년 1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주제103(2014)년 3월 9일에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모두다 영웅적진군을 다그쳐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자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량강도군중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명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량강도군중대회가 6일과 7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승리에 대한 확신과 락관에 넘쳐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 없는 기력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열의를 안고 모인 군중들로 차고넘쳤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관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명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

게 일으켜나가자!》 등의 구호관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장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우리는 단신밖에 모른다》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평안북도군중대회에서는 리만진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계명철, 도지방건설전체관리국 국장 리명훈, 신의주경공업대학 학부장 리명철,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리명호가 결

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위창한 설계도를 펼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도안의 전체인민들은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보다 큰 승리를 위해 싸워나갈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지난해는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을 벌려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한해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황성군을 찾으시어 지방공업

발전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인민생활향상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나 도를 찾으시어 나아가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고 말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하고 많은 온실을 건설하였으며 수십개의 공원을 새로 꾸리고 거리와 공공건물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며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태세를 발표하신 50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시,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피현소년단아영소, 신의주경공업 등의 개건공사에 힘을 집중하여 완공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인들을 더 많이 키워낼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나라가 번창고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앙양이 일어난다는것을 명심하고 청년들적대활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며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성기풍을 세우고 학생들에 대한 교수요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내부에비와 가능성을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높이며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판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군사중성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며 군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원수들의 그 어떤 침략도반행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조국을 굳건히 수호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군중대회에서는 박영호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김진국,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승현, 해주과학기술대학 부학장 박성학,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차경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올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열의를 안고 모인 군중들로 차고넘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령도의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 혁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군중대회에서는 박태덕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조준학, 도지방건설전체관리국 국장 한승환, 도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최명국,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리명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자강도군중대회장

위대한 사랑과 정으로 꽃피는 인민의 리상

주제 103(2014)년의 해를 이는 이 땅에만 그려진 것이 아니다. 지구상 어디에나 새겨졌다. 그러나 드넓은 세상천지를 둘러보아도 우리 인민처럼 이해의 대문을 그렇게 크나큰 희망과 포부에 넘쳐 활짝 열어진 인민은 없다.

이 땅에 생을 둔 남녀노소모두가 세계의 장엄한 첫 진군길에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아름다운 꿈을 빛나게 실현해주시길 절세의 위인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궁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일성동지님의 인민위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라나고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리고가 가슴치며 안겨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피주어야 합니다.》

귀 기울이면 2년전 태양절 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구절이 절이 추억깊이 울려온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단단시련을 이겨내며 땅을 충직하게 밟아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겠다.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제 100년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우렁우렁하게 울려 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온 나라 인민이 얼마나 격정에 목매어 울었는가.

력사의 그 어느 정지보다 내세우지 못한 담대한 목표, 거창한 실현은

우리 인민뿐 아니라 세계를 놀래웠다. 사회주의부귀영화!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을 이 세상의 억만장자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포부가 있고 확고한 의지가 새겨져 있다.

우리 당의 최고원칙, 최고투쟁목표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꿈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넘친,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숭고한 뜻과 정치신조는 원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인민사랑의 강행군 길에 뜨겁게 수놓아졌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행복을 내세우고 싶어서 피약없이 내리조이는 한낮에도, 별들이 총총한 깊은 밤에도, 삼라만상이 단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른 새벽에도 건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의 건설에 기울으신 우리 원수님의 불철주야의 로고는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혁명열화를 낳았다.

완공을 앞둔 세계적인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마다 이제 여기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날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 이런 뜻에 마음이 호응한다. 이런 뜻에 마음을 한 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심정을 무엇보다 다 헤아릴 수 있리라.

수집들이던 평범한 근로자들의 가정들 찾아서 사랑의 축배도 부어주시고 인민들이 리용할 유전기의 의자모양까지도 몸소 그림으로 그려주시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비내리는 건설장의 진창길을 앞장에서 걸으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열과 정속에 추추쳐오르는 것이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전승물들이며 원수님의 강행군포복속에 창조되는 것이 선군시대의 대고조진군속도이다.

지난해 6월에 울려 퍼진 천출명장의 호소가 지금도 우리 심장을 울려잡는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21세기의 새로운 일대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대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사명을 지닌 우리 일군들이 어떤 비상한 정신력과 실천력을 가지고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정신이 번쩍 들게 깨우쳐주었다.

오늘도 우리 일군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 《로동신문》에서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에서 접했던 때의 격정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 있다.

창조부터 날과 달을 이어 인민을 위한 현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걸으시고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그날에도 인민사랑의 뜨거운 열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차디 찬 마식령바람을 맞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마식령호텔과 스키봉사 및 속도전 물들을 돌아보시고 몸소 삭도까지 타보시면서 마음껏 스키운동을 하며 회의를 넘쳐 웃고 떠들던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기쁨속에 그려보신 우리 원수님.

물어보자, 사람들이여, 인민이 누리게 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의 사랑의 열정과 헌신의 바탕에는 무엇이 놓여있는가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숭고한 뜻에서 우리 천만군민은 인민에 대한 원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있으며 어떤 거대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맡고 가신 우리 인민을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도 감싸주며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보살펴주는 품, 이것이 이 땅의 남녀노소모두가 안겨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이다.

위대한 그 품은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게 하는 보람과 믿음의 정신이 차려지게 하는 원동력이다.

지난해 12월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 등에 보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한 정형과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원수님께 정중히 보고 올리었다.

그것을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당책임일군에게 하신 말 마음이 놓인다고, 도당위원회가 항상 관심을 두고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료해하면서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라고, 이제는 좀더, 좀더 다들 하는 겨울이라고, 아이들과 늙은이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도록 특히 아이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게 밝게 키워야 하겠다고, 이것은 도당책임비서와 도안의 시, 군당책임비서 등 모두에게 자신에게 직접 지시 사항이라고 은정깊은 친필을 보내 주셨다.

인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며 나라의 천만가지 중대사를 돌보시는 속에서도 당일군들에게 이토록 절절한 당부 하시었겠는가.

그 감동적인 사실에서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 당일군들은 조선로동당 제4차 세계비서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어머니당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할대 대하여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하신 음성들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기며 자신들의 사명감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은 절세위원의 사랑과 정으로 꽃피게 된다.

인민의 웃음소리 한껏 넘쳐나는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은하과학지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산원 유년종양연구소, 튜링구양병원, 마식령스키장...

인민의 세기적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태자의 열과 빛에도 비치지 못할 우리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정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첨저녁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라는 흥미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언제나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고 있다.

온 나라 인민을 품에 안아 따듯하게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세계가 우리 리보는 백두산대국에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꿈과 리상은 더욱 활짝 꽃피어갈 것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리정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물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 이것은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 습니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 장군님의 제일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다.

주제 71 (1982)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새로 일떠선 문수거리 물놀이장을 돌아보라고 하시었다.

한 일군이 이제 행사시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문수거리는 다음거리에 돌아보시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수거리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섰으니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인민들의 기쁨이자 우리의 기쁨이라고, 시간이 없으면 한바퀴 돌아보기도 하라고 하시면서 차에 오르시었다.

승용차가 문수거리의 강안도로 들어서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창의 유리를 내리우시더니 즐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을 눈여겨보시며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수긍도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수거리 기본도로에 들어서자 자주 차를 세우도록 하시고 손수 살림집중 수와 집들의 해비침상태, 상업물사상과 학교감까지도 일일이 헤아려보시었다.

승용차가 불빛이 환히 흐르는 한 살림집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불밝은 창문들을 바라보시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를 세우라고 이르시었다. 승용차가 멈춰서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리를 내다보시다가 등반이에 몸을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었다. 그 시각 그이께서는 창가의 창가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에 귀를 기울이고계셨던 것이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도 저 웃음소리를 듣는가, 그전엔 개구리울음소리만 들리던 따오고 물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 이것은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 습니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 장군님의 제일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다.

주제 71 (1982)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새로 일떠선 문수거리 물놀이장을 돌아보라고 하시었다.

한 일군이 이제 행사시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문수거리는 다음거리에 돌아보시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수거리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섰으니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인민들의 기쁨이자 우리의 기쁨이라고, 시간이 없으면 한바퀴 돌아보기도 하라고 하시면서 차에 오르시었다.

승용차가 문수거리의 강안도로 들어서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창의 유리를 내리우시더니 즐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을 눈여겨보시며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수긍도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수거리 기본도로에 들어서자 자주 차를 세우도록 하시고 손수 살림집중 수와 집들의 해비침상태, 상업물사상과 학교감까지도 일일이 헤아려보시었다.

승용차가 불빛이 환히 흐르는 한 살림집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불밝은 창문들을 바라보시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를 세우라고 이르시었다. 승용차가 멈춰서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리를 내다보시다가 등반이에 몸을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었다. 그 시각 그이께서는 창가의 창가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에 귀를 기울이고계셨던 것이다.

재희성

우리 장군님의 제일 큰 기쁨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길에서

몇해전 뜻깊은 새해 첫날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선군의 가치높이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헤쳐온 나날을 감회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 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혁명하여야 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맞받아나가는 전선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드센 공격전을 벌여

간곡한 당부

이 하늘아래 기어이 세상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주제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 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혁명하여야 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맞받아나가는 전선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드센 공격전을 벌여

1편에서 계속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사상, 우리 힘, 우리식이 제일이며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은 그 무엇보다도 가르막없고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유언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경공업공장을 개건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올해를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백두산절세위원들의 사상과 권위, 령도업적을 절절히 옹호고수하며 당의 유일적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워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불멸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학적농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올해에 미루벌과 미곡벌, 황주진동벌을 비롯한 그 어디서나 일과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대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군민협동작전으로 건설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폐성강발전소와 정방산호텔 등 중요대상 건설을 힘있게 추진할 것과

자강도에서

자강도군중대회에서는 김춘섭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박경일,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철, 도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구정남 등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6월 강제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며 모란봉악단의 공연도 함께 보아주시고 력사적인 연설도 하시면서 로동

계급을 고무해주시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안의 여러 부분과 단위들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진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령정신의 창조자답게 당의 전투적지도를 높이 추켜들고 강령정신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농장들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일과과 남새, 버섯, 누에고치 등은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물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일대 변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들은 혁명의 정세가 자리 잡고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영웅적전선을 다그쳐 도안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안아올대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진적,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답사를 통한 교양사업들을 더욱 심화시켜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량강도에서 강자농사를 잘할대 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언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

면서 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 강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대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농촌을 물심장면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축산은 적극 발전시켜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 지대적특성에 맞는 수년방방막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고기와 남새, 버섯생산을 늘일대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야외물놀이장, 체육관 등의 건설과 삼지연학생소년궁전개건보수공사를 잘하며 시와 군을 물론에서 실현되고 평일, 평일부 잡고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영웅적전선을 다그쳐 도안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안아올대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진적,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답사를 통한 교양사업들을 더욱 심화시켜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량강도에서 강자농사를 잘할대 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언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

《조선중앙통신》

삼지연에서, 사회주의건설과 강성국가건설전선에서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왔다.

부닥치는 난관에 동요를 모르는 불굴의 기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 그 모든것이 진격의 나팔소리에 어여워졌다.

희세의 선군명장들의 령도따라 태양조선을 영원한 승리의 나팔로 빛내어갈 철석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진격의 나팔소리를 들으며 천만군민은 위대한 진격의 위력으로 새로운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 결의를 가다듬는다.

백두산절세위원이 높이 올려주시는 총진군의 나팔소리에 화답하려는 결사의 숨결이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서, 내 조국의 힘찬 진군의 발걸음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선군의 내 조국에 약속하는 숨을 주고 넘치는 희망을 주며 비약의 역센 나팔을 달아주는 진격의 나팔소리여,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부르며 조국땅 위에 끝없이 울려 퍼지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영

그토록 이르신 인민생활문제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내게 오늘 2.8비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당부하고싶은것은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해달라는 것이라고, 동무들이 일을 많이 하여야 인민생활문제가 풀릴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뜨거운 격정을 안고 기업소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아뢰었다.

《장군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시었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 때만은 현지지도도 그만...》

격정이 북받쳐 말할을 채 맺

지 못하는 그를 정군이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자주 다녀야 모든 일이 잘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모진 추위속에서도 오로지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고결한 뜻에 일군들의 가슴속은 기쁘고 위대하게 울렸다.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깊이깊이 새겨져 있다.

일을 더 많이 해달라. 그래야 인민생활문제가 풀린다!

본사기자 김인선

자강도에서

자강도군중대회에서는 김춘섭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박경일,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철, 도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구정남 등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6월 강제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며 모란봉악단의 공연도 함께 보아주시고 력사적인 연설도 하시면서 로동

계급을 고무해주시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안의 여러 부분과 단위들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진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령정신의 창조자답게 당의 전투적지도를 높이 추켜들고 강령정신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농장들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일과과 남새, 버섯, 누에고치 등은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물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일대 변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들은 혁명의 정세가 자리 잡고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영웅적전선을 다그쳐 도안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안아올대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진적,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답사를 통한 교양사업들을 더욱 심화시켜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량강도에서 강자농사를 잘할대 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언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

면서 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 강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대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농촌을 물심장면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축산은 적극 발전시켜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 지대적특성에 맞는 수년방방막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고기와 남새, 버섯생산을 늘일대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야외물놀이장, 체육관 등의 건설과 삼지연학생소년궁전개건보수공사를 잘하며 시와 군을 물론에서 실현되고 평일, 평일부 잡고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영웅적전선을 다그쳐 도안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안아올대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진적,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답사를 통한 교양사업들을 더욱 심화시켜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량강도에서 강자농사를 잘할대 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언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

《조선중앙통신》

삼지연에서, 사회주의건설과 강성국가건설전선에서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왔다.

부닥치는 난관에 동요를 모르는 불굴의 기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 그 모든것이 진격의 나팔소리에 어여워졌다.

희세의 선군명장들의 령도따라 태양조선을 영원한 승리의 나팔로 빛내어갈 철석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진격의 나팔소리를 들으며 천만군민은 위대한 진격의 위력으로 새로운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 결의를 가다듬는다.

백두산절세위원이 높이 올려주시는 총진군의 나팔소리에 화답하려는 결사의 숨결이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서, 내 조국의 힘찬 진군의 발걸음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선군의 내 조국에 약속하는 숨을 주고 넘치는 희망을 주며 비약의 역센 나팔을 달아주는 진격의 나팔소리여,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부르며 조국땅 위에 끝없이 울려 퍼지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영

《조선중앙통신》

삼지연에서, 사회주의건설과 강성국가건설전선에서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왔다.

부닥치는 난관에 동요를 모르는 불굴의 기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 그 모든것이 진격의 나팔소리에 어여워졌다.

희세의 선군명장들의 령도따라 태양조선을 영원한 승리의 나팔로 빛내어갈 철석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진격의 나팔소리를 들으며 천만군민은 위대한 진격의 위력으로 새로운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 결의를 가다듬는다.

백두산절세위원이 높이 올려주시는 총진군의 나팔소리에 화답하려는 결사의 숨결이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서, 내 조국의 힘찬 진군의 발걸음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선군의 내 조국에 약속하는 숨을 주고 넘치는 희망을 주며 비약의 역센 나팔을 달아주는 진격의 나팔소리여,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부르며 조국땅 위에 끝없이 울려 퍼지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영



필승의 신심과 락판을 안겨주는 전투적기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가나당당과 나이제리아단체가 전진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가나민족민주대회는 1일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조선로동당에 새해인사를 보낸다.

김정은원수각하께서 하신 신년사는 조선을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고있을뿐 아니라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발전 을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을 안겨주고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끼리 해결할 데 대한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한다.

김정은원수각하께서 하신 신년사는 조선을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고있을뿐 아니라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발전 을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을 안겨주고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끼리 해결할 데 대한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한다.

김정은원수각하께서 하신 신년사는 조선을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고있을뿐 아니라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발전 을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을 안겨주고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끼리 해결할 데 대한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한다.

김정은원수각하께서 하신 신년사는 조선을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고있을뿐 아니라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발전 을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을 안겨주고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끼리 해결할 데 대한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한다.

김정은원수각하께서 하신 신년사는 조선을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고있을뿐 아니라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발전 을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을 안겨주고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끼리 해결할 데 대한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한다.

김정은원수각하께서 하신 신년사는 조선을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고있을뿐 아니라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발전 을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을 안겨주고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끼리 해결할 데 대한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한다.

신년 특집, 불려진 발행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 《야스노프》지판제 47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문헌, 백두산녀장군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의 한생은 고결한 사랑의 서사시로 길이 빛나고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두번째 걸쳐 특집하였다.

신문은 12월 24일은 향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 발휘하신 무한한 희생성과 지극한 동지사랑으로 하여 그의 빛나는 생은 고귀한 사랑의 서사시로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키고있다.

김정숙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전사자였으며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이었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서 명사수로 이름을 날리셨으며 유능한 지하공작원으로서는 많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셨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전파하는 데도 큰 공헌을 하였으며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이었다.

이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서 명사수로 이름을 날리셨으며 유능한 지하공작원으로서는 많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셨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전파하는 데도 큰 공헌을 하였으며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이었다.

신년안전을 위해 가장 용감하게 싸우셨다.

김정숙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의 미배의 령도자로 훌륭히 안아키우신 것이다.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스타》지판제 12월 22일 불려전을 발행하였다.

블레전은 《김정숙, 조선건국에 쌓인 공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무적불사의 강군으로 위용 떨치고있는 조선인민군의 력사에는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업적이 아로새겨져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정규부대의 핵심골간이 될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워내는데 깊은 관심을 들리셨다.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자주 나가시어 각종 훈련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이끄셨다.

이제서서는 평으로부터 시작된 조선의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었다. 조선의 건국사에 쌓으신 김정은동지의 업적을 빛나게 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용과 더불어 같이 빛났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은 김정은원수각하께서 하신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향도할것이다.

조선로동당 만세!

나이의제리아조선친선협회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올해에 전제 조선인민이 굳게 단합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갈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정은원수각하 만세!

조선통일 만세!

나이제리아조선친선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로씨야, 프랑스단체가 1일과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씨야 민족주국전선은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년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받들어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지난해에 반당반혁명공화일당을 제재해 적발수첩하고 대외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로씨야, 프랑스단체가 1일과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씨야 민족주국전선은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년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받들어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지난해에 반당반혁명공화일당을 제재해 적발수첩하고 대외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로씨야, 프랑스단체가 1일과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씨야 민족주국전선은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년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받들어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지난해에 반당반혁명공화일당을 제재해 적발수첩하고 대외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로씨야, 프랑스단체가 1일과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씨야 민족주국전선은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년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받들어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지난해에 반당반혁명공화일당을 제재해 적발수첩하고 대외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로씨야, 프랑스단체가 1일과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씨야 민족주국전선은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년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받들어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지난해에 반당반혁명공화일당을 제재해 적발수첩하고 대외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로씨야, 프랑스단체가 1일과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씨야 민족주국전선은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년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받들어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지난해에 반당반혁명공화일당을 제재해 적발수첩하고 대외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조선

주조 헬남특경전진대사 평방 바오 통신문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급속한 발전상황을 찬양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사업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여러차례 뵈다가에서 비운은 영광을 지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조선의 젊으신 령도자는 매우 겸허하고 배려바르시며 편안한가를 주는 분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모든 힘을 농업, 공업 등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하고있다.

평양은 매우 현대적인 도시이다. 건설속도부터 하부구조, 건물체 등 모든것이 정확히 계획화되었다.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특색있는 건축물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최근 어느 한 서방통신사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한것은 정확한 평가이다. 조선에서의 건설은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평양과 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도시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지 못하였다.

일본의 위협론을 배격

중국국방부 보도대변인이 최근 정기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문제들에서 《중국위협》을 고취하는데 대해 단호히 반대배격하였다.

그는 최근 일본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증진계획 그리고 첫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채택된데 대해 지적하고 중국측은 《중국위협》을 고취하고 지역의 긴장한 분위기를 파장하며 자체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수호라는 간담에 군비확장을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 일본의 처사에 대해 결렬히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신양의 자유를 유린하는 이러한 행위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감시카메라를 당장 해체하고 극단적인 유대인들의 사원출입을 금지시킬것을 이스라엘 당국에 요구하였다.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군민관계강화조치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최근 실명명 및 용역실기 간 군대를 용호하고 용호하는 군대를 우대하며 정부를 용호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쌍용활동》을 진행하여 군대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이 군대를 용호하는 두러은 사회적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통지문을 하였다.

통지문은 각급 부대들이 중국군대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받아들여 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임으로써 관병들이 인민을 따르며 우호하고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는 사상적기초를 확실히 닦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륙(난도)시일 발사, 전략핵잠수함 취역

로씨야가 지난해 12월 24일 블레세즈우주발사장에서 갠도식고체연료대륙간도미사일 《PC-24 야르스》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블리란투를 탑재한 미사일 은 감차프탄도의 무라시공장에 있는 목표물 정확히 타격하였다.

로씨야전략로켓포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밝히면서 시험발사의 기본목표인 미사일종착의 기술적성능과 믿음성, 안정성, 정확성을 증명하는데 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로씨야가 지난해 12월 25일 군용위성들을 탑재한 운반로켓 《로코프》를 띄웠다고 한다. 운반로켓은 블레세즈우주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한다.

이 나라 항공우주방어군 대변인이 이에 대해 밝혔다.

그리고 로씨야가 지난해 12월 27일 아스트라한주에 있는 카부스젠 야르시공장에서 《P C-12M》(포콜)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진행하였다.

미사일의 훈련용탄두는 까자흐스탄의 사리-사간시공장에 있는 가상목표를 정확히 소멸하였다.

한편 로씨야에서 지난해 12월 23일 4세대 전방핵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가 해군에 정식 취역하였다.

세베로캅카스에서는 세브마슈조선소에서 최신형잠수함 기발을 계약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브레야》 95형의 첫 계열함인 《알렉산드르 넵스키》호는 세브마슈조선소에서 건조한 130번째 핵잠수함이라고 한다.

국산제로켓트 시험발사

인디아가 지난해 12월 19일 오리사주에 있는 해상지에서 6기의 국산제 《피나카》로켓트들을 시험발사하였다.

사거리가 40km이며 여러 형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로켓트는 든든한 구조물과 지하갱도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이 나라 통신이 전하였다.

한편에 국내자동차판매량이 그해에 비해 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프랑스에서도 자동차판매량이 5.7% 감소되었다. 판매감소분이 이 나라에서 자동차공업부문이 심각한 불경기에 시달렸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 기념메달 제정

로씨야대통령 올라지미르 푸틴이 최근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 기념메달을 제정할데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정령에는 메달이 전승 70돐을 기념하여 그리고 전쟁로병들의 위대한 위훈과 영웅주의, 자 기희생정신을 높이 존경하여 제정되었다고 지적되었다.

정령에 의해 메달에 관한 규정이 비준되었다.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벨라리아가 지난해 12월 16일 두 나라 합법기관들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 중국과 에집트는 전략적협조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부담한 처사

요르단공보체신담담국 국무상이 최근 자기 나라 주재 이스라엘 대사들을 호출하여 이스라엘당국의 부담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는 감시카메라를 당장 해체하고 극단적인 유대인들의 사원출입을 금지시킬것을 이스라엘 당국에 요구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

에스빠냐에서 지난해 12월에 실업자수가 470만 1300명에 달하였다. 3월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도이쉴랜드의 한 경제단체는 3일 조사자료에 인용하여 지난해에 국내자동차판매량이 그해에 비해 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프랑스에서도 자동차판매량이 5.7% 감소되었다. 판매감소분이 이 나라에서 자동차공업부문이 심각한 불경기에 시달렸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독특한 천재료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달팽이를 리용하여 독특한 천재료를 얻어내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천재료는 수지와 종이를 먹은 달팽이의 《배설물》을 통해 얻어진다.

수지와 종이는 달팽이의 체내에서 독특한 과정을 거쳐 배합된다. 이렇게 얻어진 천재료는 절기고 부드럽기때문에 천생산에 리용될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언론의 신뢰는 누가 짓밟는가

얼마전 프랑스의 AFP통신사 사장이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언론의 생존조건에 대한 제 나름의 소감을 발표하였다. 주목되는것은 그가 보도의 신뢰성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운것이다.

사실 정의를 사랑하는 문필가라면, 공평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이라면 보도의 신뢰성은 구태여 논할것이 못된다. 하지만 서방언론에서 보도는 그런데서, 서방언론에서 판을 치는 현 국제공보시장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인터넷의 출현과 그의 광범한 리용, 리용수단들의 빠른 발전 등으로 세계가 좁아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수직적인 수직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직 지향은 수직 지향이다. 수직 지향은 수직 지향이다. 수직 지향은 수직 지향이다.

자료를 의하면 세계적범위에서 서방나들이 인터넷하부구조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국제공보공류의 대부분을 통제하고있다. 서방나들이들은 경제적과 최신과학기술의 추세에 의거하여 대규모의 현대적인 공보수단들을 독점하고 저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외곡된 정보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있다. 정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거짓대로 사회 여론을 주도하고있으며 허위를 날조하고 반인민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미화하고있다. 특히 그들은 반제국주의적인 나라들, 경쟁적수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공보수단들을 리용한 반동적인 선전공세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서방세력의 공보수단들을 통한 심리조작이 이전 조련과 동유럽에서 지배주의적인 정책실현에 부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미국의 언론은 그 축소판이다. 미국 지배층은 공보수단들이 저들의 립장을 벗어나 목소리를 내는것을 엄격히 통제하고있다. 몇몇몇 미군위주자들에게 의한 고관경도보수대에 대하여 보도

가 한차례의 거대한 사변으로서 절대적인 대서특필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가 한차례의 거대한 사변으로서 절대적인 대서특필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조선보도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처사를 비판해나갔다. 이것이 진실을 전하는 공정한 언론에 자각을 물리고 저들의 침략사실현을 위해서는 황당한 거짓자료들을 꾸며내어 배정 것이 내뉘는 미국의 《언론자유》의 전면모이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언론 탄압, 거짓언론조작행위의 주요한 특징과 비열성, 반동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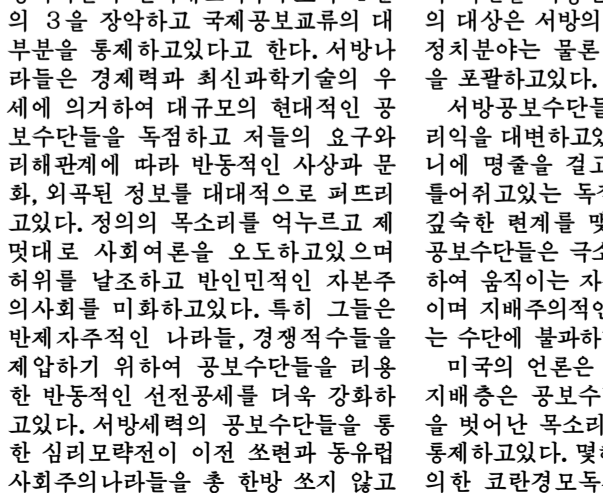
지금도 서방의 적지 않은 언론들은 조선반도사태를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구미에 의거하여 불이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미국은 조선전쟁에 이어 현재도 조선에 핵위협을 가하고있다. 그 어느 나라도 조선과 같이 수시로 핵위협을 받는 나라는 없다. 이러한 위협은 항상 미국으로부터 오고있으며 60여년동안 지속되고있고 하면서 《서방언론들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한 민족을 파괴시키지 않을것이다》는 핵대국의 가장 지렬한 처사에 놀아나는 명당구리들이다.》라고 단죄하였다.

그렇다. 정의와 양심을 귀중히 여기고 보도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보장해야 할 언론이 자기의 초보적인 원칙마저 버리고있는것은 개관한 일이다. 정의와 진리가 부정부패에서 뒤떨어지고 권력과 돈에 굴복하여 언론을 제버린 언론은 사실상 언론이 아니다. 권력과 돈의 시녀이다. 현실은 넓고 불공정한 국제공보시장에 지속적으로 한 국제관계에서의 정의와 평등은 언제나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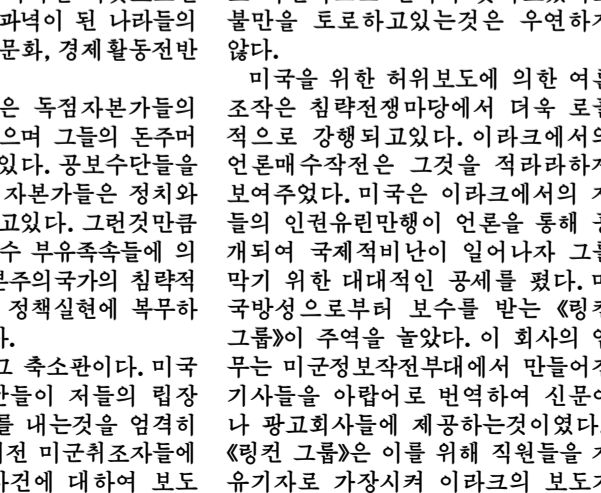
서방보도계는 그 무슨 실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특정보험들의 강행에 놀러워 핵을 전도하는 더러운 악습부터 버려야 하며 언론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배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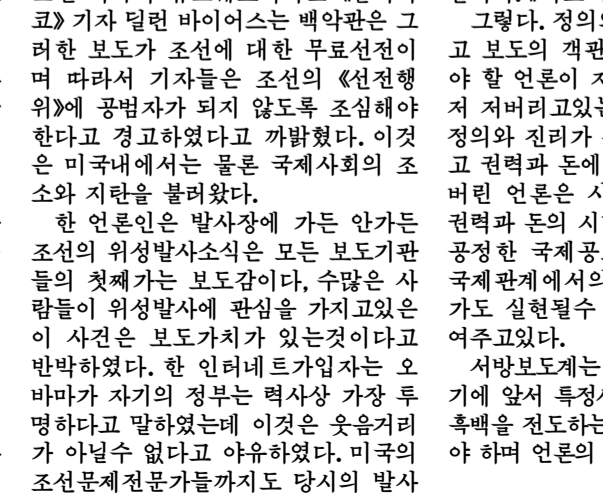
유럽 최대의 활화산 에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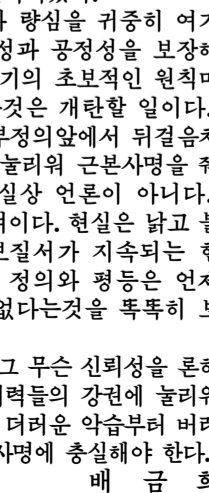
유럽 최대의 활화산 에프나



유럽 최대의 활화산 에프나



유럽 최대의 활화산 에프나



유럽 최대의 활화산 에프나